

시민들 정신건강 보호에 적극 대응

전주시보건소, 정신건강증진사업 집중 전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 운영

전주시가 정신질환 및 자살 충동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촘촘한 안전망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센터장 정상근)와 함께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사업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활동 ▲정신질환자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조기 정신증 조기 개입 및 관리 등이다.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초·전문교육을 받은 전문봉사자 30명이 관내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생명사랑봉사단 '다섯'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매월 2차례씩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울, 자살, 스트레스 등 척도검사를 진행하고 스트레스 격파, O·X 퀴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자살예방·생명사랑 거리 캠페인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리하기 위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프로그램인 '내 마음의 신호등' 서비스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울과 자살 등의 정신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관내 노인복지관(4개소)을 이용하는 어르신 9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 우울, 스트레스가 높은 고위험군 23명을 발굴했다.

또 위탁병원인 전북대학교병원과 협



“위안부 문제, 정의롭게 해결을”

11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가 전주 종남관광장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11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가 전주 종남관광장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력병원인 마음사랑병원·미래병원·신세계병원과 함께 기초 상담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상담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이동형 상담부스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인 자살시도자 및 사고자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타님 포인트' 사업은 예술치료 프로그램과 자조모임, 가족교육, 희망메세지 등 회원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참여공간을 제공해 고위험군의 우울감 및 자살사고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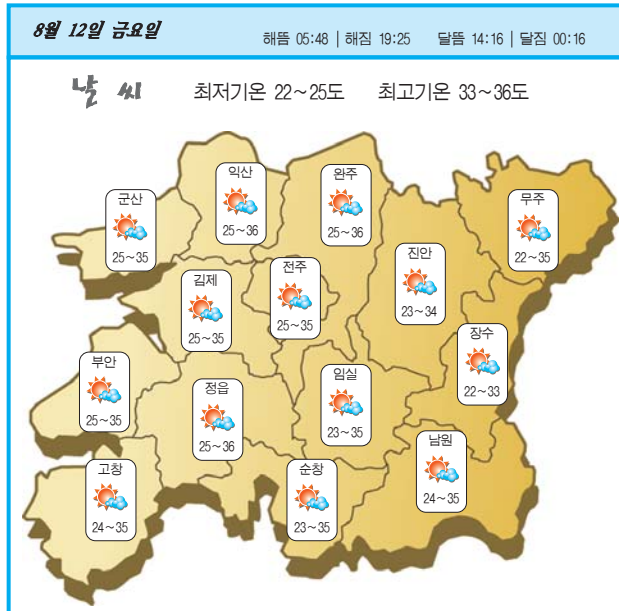
험을 낮추고 있다.

조기 정신질환자들이 학업·사회로의 빠른 복귀를 돕는 '바람 꽃 서비스'도 전개해 발병 5년 이내의 조기 정신증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와 회복력, 심리치료, 이미지 메이킹, 체력증진, 여행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건강보험료 120% 이하) 회원을 대상으로 연 30만 원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모바일 앱(MIND SCAN)을 통

해 관내 정신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가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전주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있다”며 “자살 등 정신질환의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행복하고 위험 없는 안전도시 전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미래 먹거리 스마트미디어 분야 생태기반 구축 나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KCA와 협약 체결

전주시가 미래 먹거리인 미디어 파사드와 디지털사이드 등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생태기반 구축에 나선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11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미래부 산하)과 2016 K-ICT 스마트미디어 지역센터 수행기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문 기술교육을 통한 창업지원, 융합서비스 제작지원, 마케팅 및 기술상용화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파사드와 디지털사이드 등 지역 내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 및 영상기술분야 창업자 등의 육성과 사업화·창업 지원 등이 가능해져 스마트미디어 지역특화산업 육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시가 지난 7월 2016 K-ICT 지역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광주·경북과 함께 최종 선정된 따른 것으로 ICT산업 전문 육성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디지털사이드 융합기반의 스마트미디어 분야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진흥원은 사업선정으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전북정보산업지원센터 내 981㎡ 규모의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를 구축하게 된다.

센터 내에는 미디어파사드를 중심으로 사이다융합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가 가능한 사이다 스튜디오 영상편집 제작실인 미디어룸, 전문교육실, 컨설팅과 기업간 창업자간 협업 네트워킹을 위한 오픈랩실, 입주기업공간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진흥원은 전라북도와 참여기관인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협력기관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산학연관 협의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기술·정보교류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K-ICT 스마트미디어 공모선정에 따라 전주시 신성장산업 동력인 3D프린팅, 드론, IoT 등과 연계하여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센터는 예비창업자와 기업인들의 실질적인 기업성장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지역기업 활성화와 첨단 미디어분야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KEB 하나은행, 원광대에 대학 발전기금 3억원 기탁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이 원광대학교 발전기금으로 3억 원을 기탁했다.

지난 10일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KEB하나은행 광주전북영업본부 양호철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원광대를 찾아 김도중 총장에게 직접 기금을 전달했다.

김도중 총장은 “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 기금이 용도에 맞게 잘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도교육청 내년도 대입 수시 지원전략 입시설명회

내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서 개최... 분석·전략 등 설명

전북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대입 수시 지원전략 입시설명회를 오는 13일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내 고3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날 설명회는 변화하는 대입제도 및 대학별 전형방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사들의 내실있는 수시 진학상담 및 도내 고3 학생들의 수시 지원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북권 대학, 교대, 지방 거점대에 대한 2017학년도 대입 수시분석

및 지원전략에 대해 전북대입지원단 강사가 80분간 설명한다. 이어 최승후 대교협 대표강사가 나와 90분 동안 수도권 대학에 대한 대입 수시 주요사항을 분석해주고 지원전략을 제시해준다.

설명회에 참석하는 학생, 학부모 등에게는 전북·수도권 대학의 수시자료도 제공된다. /고민형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은행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